

# 함평군민과 대화 '주파수를 맞춰라'

### 이상의 군수, 오늘부터 자동차극장서 비대면 소통...유튜브 생중계도

코로나19가 군정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 감염병 확산 우려에 순회 대면 방식이 금지되고, 반면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가 뜨고 있다. 특히 함평군은 자동차극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군수와 만나는 군민과 대화를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비대면이지만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상의 군수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함평자동차극장에서 '군민과 대

화'를 진행한다.

9개 읍·면을 하루 1~3개 읍면(22일 함평·손불·신광면, 23일 학교·염다·대동면, 24일 나산면, 25일 해보·월야면)으로 나눠 이뤄진다.

주민들은 최대 140여명(차량 70대)이 참석하며, 자신들이 몰고 온 자동차에 탑승해 이 군수와 현장대화를 한다.

함평군은 라디오 주파수와 무선마이크를 활용해 참석자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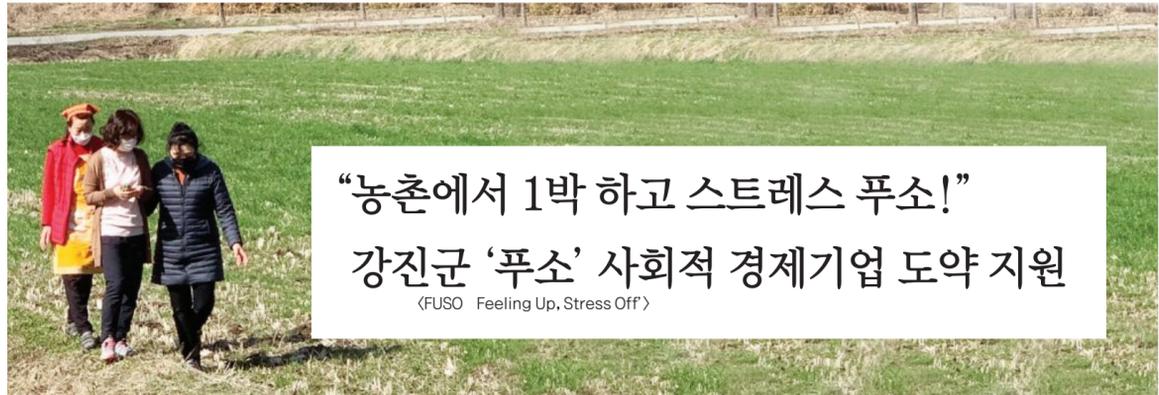
다. 또 군민과 대화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함평군이 군민과 대화에서 함평자동차극장과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과 함평자동차극장 홍보를 위한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함평자동차극장은 지난 1월 28일 개장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비대면이지만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과는 차이가 있다"며 "군민과 대화는 민선 7기 군정 운영 방향과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은학 기자 hwang@kwangju.co.kr



**“농촌에서 1박 하고 스트레스 푸소!”**  
**강진군 '푸소' 사회적 경제기업 도약 지원**  
 (FUSO Feeling Up, Stress Off)

서울에서 온 60대 여성들이 지난 16~17일 올해 첫 '강진 푸소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 체험연구회 대상 '창업 아카데미' 개강...2인 이상 소규모 전환 올 첫 프로그램 시작

강진군이 '푸소(FU-SO)'의 사회적 경제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은 최근 푸소체험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이는 푸소체험연구회의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6일 개강했으며 다음달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개강 강의는 사단법인 '상생나눔' 김중혁 이사가 '사회적 경제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가자 80여명은 사회적 경제기업

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푸소(FU-SO)'는 'Feeling Up, Stress Off'의 약자로서 농촌의 감성을 체험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어내라는 의미다.

시골 집에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을 함께 생활하는 농가 민박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강진군 고유의 관광상품이다. 현재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외국인 푸소체험', '학생대상 푸소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16일 올해 푸소체험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온 60대 주부 A씨와 일행 2명이 1박2일간 푸소체험을 했다.

강진군은 그동안 푸소체험을 수학여행 등의 단체 관광 위주로 운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규모 여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2인 이상이면 체험이 가능하도록 기준인원을 조정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은 '푸소'와 관련된 현장밀착형 사업의 꾸준한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관광트렌드가 국내, 가족단위 여행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푸소체험연구회의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준비와 도약을 강진군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장흥 관문 평화IC 개설...연말 완공

장흥 관문인 국도 2호선 평화나들목(IC)이 개설된다.

21일 장흥군에 따르면 국도철도공단은 목표와 부상을 있는 국도 2호선 장흥 구간에 평화IC를 개설한다. 평화IC는 보성-목포 임성 간 전철 구간 장흥역사(정거장) 진입로와 병행해 개설하는 것으로, 지난달 착공해 올해 연말 완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0억5000만원(국비 21억, 군비 9억원)이 투입되며, 장흥읍 중앙로 군민회관까지 연결하는 연장 810m 4차선(폭 21m) 규모다.

평화진입로가 개설되면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전철의 이용객은 물론 국도 2호선에서 장흥읍으

로 들고 나가는 1일 1만1000여대 차량의 교통 불편과 혼잡이 완화된다.

국도 2호선에는 장흥읍 진입도로가 없어 장흥읍을 오가는 차량은 3km 이상 떨어진 향양IC나 순지IC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보성-목포 임성 간 남해안철도는 시속 200km 단선 전철구간으로 지난 2015년 착공해 현재 92%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23년 3월 말 준공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이 코로나 19에 지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한 번 더 연장한다.

장흥군은 오는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3월까지 두 차례만 감면 연장할 계획이었지만, 농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간을 또 연장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3월부터 농업인에게 기종별로 주당 1일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만4002건의 임대 건수 중 79.5%인 1만1142건, 2억7400여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줬다.

장흥군은 4~6월 본격적인 영농철에는 임대사

## 상생·연대로 코로나19 극복

### 계산 먼저!

### 나주시 '선결제 캠페인'...소상공인 매장 릴레이 챌린지 방식

나주시는 코로나 19로 휘청거리는 소상공인을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돕기 위해 '착한 선(先)결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공공 주도의 착한 소비자 운동이다. 업무추진비 등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매장에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고 추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강인규(왼쪽) 나주시장이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 첫 주자로 참여했다. (나주시 제공)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동참 물결이 일면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고 있다.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이 청년창업 요식업소를 방문해 첫 주자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강 시장은 동신대학교, 한국전력공사 나주시지사,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를 다음 캠페인 주자로 지목했다.

나주시는 전체 공직자에 이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민·관으로 '선결제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선결제 후 인증사진과 홍보 슬로건 문구인 '착한 선결제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됩니다'를 SNS 또는 시정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 3명을 지명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 한번 더!

### 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6월까지 연장... 토요일에도 센터 운영

장성군이 코로나 19에 지친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6월까지 한 번 더 연장한다.

장성군은 오는 6월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3월까지 두 차례만 감면 연장할 계획이었지만, 농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간을 또 연장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3월부터 농업인에게 기종별로 주당 1일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만4002건의 임대 건수 중 79.5%인 1만1142건, 2억7400여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줬다.

장성군은 4~6월 본격적인 영농철에는 임대사



장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성군은 지난해 3월부터 농업인에게 기종별로 주당 1일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만4002건의 임대 건수 중 79.5%인 1만1142건, 2억7400여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줬다.

장성군은 4~6월 본격적인 영농철에는 임대사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S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가 돌면서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차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